

맥주축제 끝판왕, 제4회 강진하맥축제 온다

강진군이 제4회 강진하맥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입장 안내부터 좌석 운영, 맥주 제공, 교통, 폭염 대응까지 분야별 편의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축제는 폭염 속 관광객 안전과 쾌적한 관람 환경을 고려해 축제장 입장시간을 지난해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로 한 시간 늦췄다.

오후 5시 이전에 도착한 관광객은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도착 순서대로 입장할 수 있다.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축제장 주변에 마련된 물놀이장과 펌프게임장, 각종 행사 부스를 이용하며 더위를 식히고 축제 분위기를 미리 즐길 수 있다.

관광객은 관람 형태에 따라 사전예약석과 일반석을 선택할 수 있다. 일행과 함께 좌석을 미리 확보해 여유롭게 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은 사전예약석을 이용하면 되고, 별도 예약 없이 방문한 관광객은 현

장에서 일반석 입장권을 구매하면 된다.

사전예약석은 6인 기준 15만 원으로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전용 좌석과 공연 관람, 맥주 무제한 이용이 포함돼 있어 일반석 입장권을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 사전예약석 이용객에게는 변온컵과 강진사랑상품권 2만 원 환급 혜택도 제공된다.

사전예약석은 축제 마지막 날인 토요일 좌석이 이미 매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목요일과 금요일 좌석도 잔여석이 많지 않아 사전예약석 이용을 원하는 관광객은 서둘러 예매하는 것이 좋다.

맥주 제공 방식도 한층 편리해진다. 강진군은 관광객이 물리는 시간대에도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맥주 제공 부스의 셀프존을 확대하고, 이용 동선을 분산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맥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운재 기자



제3회 강진하맥축제 행사모습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서용운 기자

무안군, ‘몽탄 즐거운 마마학당 3기’ 힘찬 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 14일 몽탄꿈여울다목적센터에서 입학생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탄 즐거운 마마학당 3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승승장구난타’ 동아리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지난해 마마학당 활동영상 시청, 환영사와 축사, 신입생 선서,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서로 안부를 나누며 앞으로 이어질 학당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몽탄 즐거운 마마학당 3기’는 입학식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예·간단 요리교실 등 인지·동작 활동 ▲작은영화관 관람·노래교실 등 문화·여가 활동 ▲시니어 체조·백세건강체조 등 건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졸업여행과 졸업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목포, 목포해양대 침수 원인 조사·재발 방지 총력



목포시청 전경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일부 시설이 침수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학교 측과 협의해 지난 7월 2억 원을 투입, 배수펌프 2대와 압송관로 51m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배수시설을 보강했다.

이번 침수는 161.5mm의 집중호우와 대조기가 겹치면서 해수위가 상승해 배수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우수관로와 배수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설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침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해 현장과 배수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 옥외광고 근절에 나선다.

함평군은 18일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관내 옥외광고물 5,300여 개소를 대

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적법 광고물은 2,679건(51%), 무허가(미신고) 등 불법 광고물은 2,621건(49%)으로 확인됐다.

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에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 기간 내 등록 시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다만,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양성화 신고 대상은 적법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건 구비 불법 광고물 1,703건이다. 벽면·지주·돌출·옥상·간판 등 고정형 옥외광고물이 해당한다.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2026년 7월 이후 설치된 간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 고수온 피해 예방 조피블락 82만 마리 방류

신안군(군수 김태성)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4일 압해읍에서 조피블락 8만 마리를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8월 중 총 82만 마리를 긴급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방류는 지난 7월 27일 흑산면 등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양식장 사육밀도를 낮춰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방류에는 압해읍, 흑산면, 안좌면 3개 지역의 총 11개 양식어가가 참여한다.

올해 긴급 방류 물량은 총 82만 마리로 지난해보다 약 4배 증가한 규모다. 지속되는 고수온으로 양식어류의 폐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방류 규모를 확대했다.

/박성태 기자

영암군, 모처럼 내린 단비에 농업 현장 ‘숨통’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암 농업 현장에 모처럼 단비가 내렸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기준 지역 평균 강우량은 124.4mm로 집계됐으며, 삼호읍에는 174mm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메말랐던 논·밭의 토양 수분을 보충하고 농

작물 생육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수지와 하천 등 농업용수 공급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은 그동안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자 농업용수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급수차와 양수시설 등 가용장비를 투입해 용수를 공급하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을 이

어왔다. 특히 농업용수 부족이 심했던 지역의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농가와 마을별 용수 상황을 살피며 필요한 지역에 비상급수를 지원해 왔다.

영암군은 이번 비를 계기로 농업용수 확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기철 기자

